

전주매일

금연상담전화 | 1833-9030
전라북도 익산시 무왕로 895신동동 344-22 한광대학교병원 5층 1호
TEL: (063) 859-2400 ~ 2410 FAX: (063) 859-2414

비수술적 척추관절 통증치료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박경문 ☎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변 2길 6번지

2016년 4월 15일 금요일 (음 3월 9일) 제1540호

www.jjmaeil.com

대표전화(063)288-9700



“만세!” 14일 전북도의회에서 국민의당 제20대 국회의원 당선인들이 한자리에 모여 두 팔을 올려 만세를 부르고 있다.

여 '참패' · 야 '승리' 여소야대 구도

새누리 122 · 더민주 123
국민의당 38 · 정의당 6석

4·13 국회의원총선거의 개표가 종료된 가운데 여소야대 정국이 현실화했다. 특히 더민주가 예상 밖으로 수도권에서 약진하면서 원내 제1정당이 새누리당에서 더민주로 교체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14일 오전 7시 현재 개표가 종료된 가운데 지역구와 비례대표를 합해 새누리당 122석, 더불어민주당 123석 · 국민의당 38석, 정의당 6석, 무소속 11석이 당선 확정됐다. 전국 253개 지역구 중에서는 새누리당이 105석, 더민주가 110석, 국민의당이 25석, 정의당이 2석을 각각 확보했다. 무소속 후보는 11명 당선됐다. 비례대표의 경우 새누리당 17석, 더민주 13석, 국민의당 13석, 정의당 4석이 확정됐다.

도내 '더민주 공천장=당선' 공식 깨졌다

Report 20대 총선 그 이후... ①정쟁구도 본격화

4·13 총선은 한치 앞을 전망하기 어려웠다는 점에서 역대 어느 선거보다 혼전이었다. 특히 새누리당의 등원과 국민의당의 압승 등 기적과 같은 이변이 속출했다. 결과는 더불어민주당의 추락으로 정치 지도를 새롭게 그려야 하는 상황으로 4.13 총선이 남긴 의미는 적지 않다. 4·13 총선 이후를 분야별로 정리해 본다.

▲전북 정치 지형도의 급변
이번 총선은 더민주의 추락, 국민의당의 화려한 데뷔로 귀결됐다. 무엇보다 민주당 일색의 정치 지형에 균열이 생기면서 '더민주당 공천장=당선'이라는 등식이 더 이상 통하지 않게 됐다. 국민의당과 새누리당이 의석을 나눠 갖게 됐으며, 더민주당 당선자들의 득표율도 이전만 못하다. 더민주당은 사실상 지난 30여년 간 전북지역에서 전체 기능을 상실한 채 토착세력으로 안주해왔다. 이를 몰타 새누리당은 도내에서 국회의원을 배출했으며, 국민의당이 어엿한 1당으로 급부상할 수 있는 틈새를 낚았다. 더민주당은 10석 가운데 2석을 차지하는데 그쳤다. 야권 주도권을 놓고 국민의당과의 대결에서 참패한 것으로 더민주당에 대한 민심 이변이 확인됐다. 전체적으로는 국민의당의 완승이라고 말할 수 있는 가운데 더민주당은 신랄한 경고장을 받아든 셈이다.

새누리 1석 · 국민의당 압승 토착세력 안주에 대한 '경고장'
정당별 소속 당선자 각양각색 상호견제 · 경쟁 치열할 듯

이와 함께 전체 10명의 국회의원 중 국민의당 정동영 · 조배숙 당선인은 4선에 성공했으며 이춘식(더민주) · 유상열(국민의당) 당선인은 3선, 국민의당 김관영 당선인은 재선에 안착했다.

▲경쟁 정치구도 본격화
20대 총선 이후 전북 정치권 정치 지형 변화

에 대한 관측이 그 어느 때보다 무성하다. 하지만 경쟁구도에 놓인 각 정당의 경쟁이 치열할 수 밖에 없다는 목소리는 한결 같다. 표면적으로는 경쟁의 정치 구도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국민의당과 더민주, 새누리당 소속 당선자들이 각양각색인 탓이다. 국민의당 소속 7명과 더민주 2명, 새누리당 1명으로 도내 국회의석수가 재편된 만큼 상호 경쟁 및 견제가 치열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무엇보다 경선 및 본선 과정에서 각종 선거법 고소 고발전에 따른 당선자들의 도중하차 등 극단적인 경우를 배제할 수 없어 국회 개원 초반, 즉 올 연말까지는 뒤숭숭한 정치 상황 연출이 예상된다.

여기에 더해 내년 다가오는 차기 대선과 2018년 본격화될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적 분열은 최정잡에 달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연말 지역 예산 확보는 물론 현안 해결 과정에서도 난관이 우려된다. 도내 14개 시군 단체장 중 더민주당 소속인 지역은 전주, 군산, 남원, 정읍, 순창, 무주, 장수, 고창인 지역이며 국민의당 소속은 익산(국민의당), 무소속은 김제, 완주, 진안, 임실, 부안은 나뉘고 있다. 이들과 20대 국회의원 간 공조 부재 또는 소동남매가 우려되는 대목이다. 지역 단체장 공천권을 둘러싼 국회의원별 입장차는 친소관계를 뛰어넘는 정치적 분화의 직접적 이유임을 감안하면 무시 못 할 정치적 쟁점이 동원될 수 있다. /고민형 기자

- ▶ 매일 INDEX
- 3면 국민의당 김광수 당선인에게 묻다
- 4면 총선당선자 104명 선거사범 입건
- 5면 전주 첫 마중길 조성 첫 삽든다

고창군 GOCHANG COUNTY

한국인의 본향 고창, 초록물결 청보리밭!

제13회 고창 청보리밭 축제

2016. 4. 16 (토) ~ 5. 8 (일) 23일간
고창군 공음면 학원관광농장 일원

유네스코 고창 생물권보전지역